

건설기능인 고수 열전

-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 축제, 14개 직종 301명 참가 -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13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30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건설기능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13일 충북 음성군 금왕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130만 건설기능인을 대표해 14개 직종(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 방수) 301명이 출전하여 참가자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 건설

공제조합 정완대 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건설기술교육원 김석현 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5%,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는 핵심기간 산업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건설기능인 여러분의 소중한 땀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여러분들이야말로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이다”고 격려했다.



최삼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들이야말로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이다”고 격려했다.

최삼규 회장은 또한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우수 기능인력 발굴을 위한 건설업계의 중요한 행사로서, 기능인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조성과 우수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능인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한 치사를 통해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우수한 건설기능인의 산실이 되어왔으며 건설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능인이 건설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확대 등의 정책 마련을 통해 건설기능인들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으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치사를 통해 “건설기능인들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으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근로자 양성지원금’ 1억원 전달

이날 대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우수한 청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총 1억원의 ‘건설근로자 양성지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 전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김인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장에게 건설근로자 양성지원금을 전달했다.



정해돈 회장은 건축배관 및 전기용접 등 설비분야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한편, 이번 대회는 부대행사로 행사 전날인 20일 복지후생동 2층 강당에서 '최형만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돼 참가 선수들의 활력과 여흥을 돋웠으며, 행사장 내외 공간에 '대한민국 건설산업 사진전 - 어제 그리고 오늘' 및 '2013 건설기능인의 날 사진공모 입선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정해돈 회장, 참가자 격려

이날 정해돈 회장은 건축배관 및 전기용접 등 설비 분야 직종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에게 "오늘은 현장에서 다져진 실력을 보여주는 날이다"면서 "지나치게 긴장하면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시공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경기에 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정해돈 회장은 참가 선수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숙련 인

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모든 건설단체들이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해돈 회장은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기술만 같고 닳으면, 학업은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학업에 대한 열정도 불태워줄 것을 당부했다.



정해돈 회장은 오찬장에서 고령화로 숙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건설단체들은 우수기능인력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상자 전원에게 상금 및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 지원

한편, 각 분야에 출전한 기능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73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대회 입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및 상패,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증과 함께 국내외 산업연수 등 특전이 주어지며,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제21회 건설기능

경기대회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부문에 이선학[(주)대청엔지니어링, 대전·세종·충남]씨, 이재용[(주)연세기계설비, 경북]씨, 박권희[영지기계설비(주), 충북]씨, 조남용[중원엔지니어링(주), 서울]씨, 강대용[대하산업개발(주), 광주·전남]씨가 입상했으며, △전기용접 부문에는 김종관[(유)아남설비사, 울산·경남], 김태성[(주)금화피에스시, 서울]씨가 입상했다. 🌟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자)

| 직종 | 순위 | 성명 | 소속회사명 | 소속 시·도회 |
|------|----|-----|------------|----------|
| 건축배관 | 1위 | 이선학 | (주)대청엔지니어링 | 대전·세종·충남 |
| | 2위 | 이재용 | (주)연세기계설비 | 경북 |
| | | 박권희 | 영지기계설비(주) | 충북 |
| | 3위 | 조남용 | 중원엔지니어링(주) | 서울 |
| | | 강대용 | 대하산업개발(주) | 광주·전남 |
| 전기용접 | 3위 | 김종관 | (유)아남설비사 | 울산·경남 |
| | | 김태성 | (주)금화피에스시 | 서울 |

